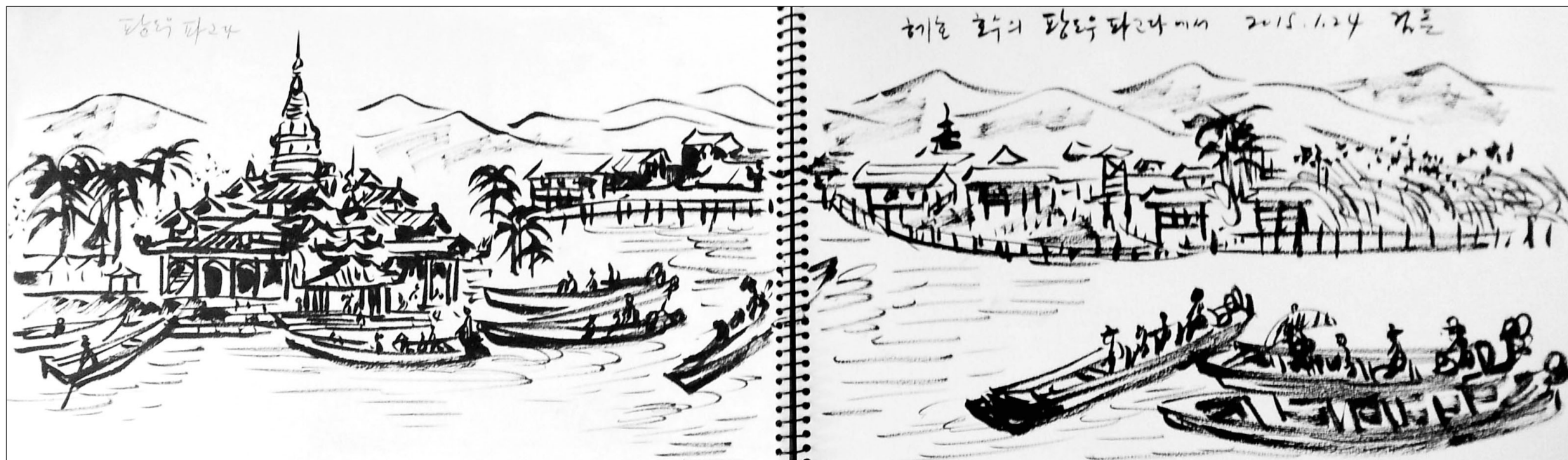


###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④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 황금 불토에서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 소수민족의 뿌리 깊은 삶을 보다

점심을 먹고 호수 중앙에 조성된 팡도우 파고다로 이동한다. 계단을 올라 사원의 내부로 든다. 다섯 불상의 모습은 모두 둥근 공의 형태로 본디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 신도들이 금을 입힌 결과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심중하다. 형상은 무릇 마음에 나온 것이니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면 아무 것도 없을 진저 진공묘유(眞空妙有)에 대한 가르침은 아닐까. 미얀마 4대 사찰의 하나로 일생에 한 번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을 미얀마 사람들은 필생의 숙원이라고 한다.

사원을 나와 배를 타고 소수민족의 삶의 현장을 찾아간다. 첫 번째로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여러 가지 생활소품과 도구들을 만드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옛 사극 속 풍경이다. 별걸레 달근 쇠를 내려치는 메질소리가 땅 땅 땅, 리듬을 타고 울린다. 다음으로 수련을 이용하여 옷감을 만드는 전통공방을 탐방한다. 연 줄기를 잘라 양 옆으로 잡아당기자 무수한 흰 섬유가닥이 길게 늘어진다. 연사(蓮絲)는 연봉꽃을 피우는 연에서만 뽑아낼 수 있으며, 옛날 어떤 여인이 스님께 가사를 지어 올린 것에서 유래되어 현재의 직물산업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손금 일 그림을 잡아당기면 삼천 미터 넘게 늘어날 만큼 연실타이 좋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순일하면 끝없는 인연으로 이어져 알록달록 아름다운 영혼의 옷감이 된다는 것을 은연히 말해주고 있다. 모두 제품은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물레를 돌리고 베틀에 얹은 모습 속에서 아득한 유년의 풍경들이 떠오른다. 스카프와 미얀마 전통의상 등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간다. 우리의 한복만큼이나 빛깔이 곱고 다양하다. 내가 여인이라면 저 옷 한 벌 사서 입고 싶다. 아침햇살 은은히 받는 흥매화인양 흥매화의 붉은색을 설퍼하게 처리하여 격조를 은근히 높인 저고리와 인레호수의 처연한 아름다움이 깃든 블루사파이어 빛 치마를 입고 나들이를 하거나 차 한 잔 앞에 놓고 깊은 고요를 음미하고 싶다. 저런 아름다운 옷에서는 가끔씩 생의 질투가 느껴진다. 이어

서 카렌족이 사는 마을로 이동한다. 일명 바다웅족이라 부르고 목에 황동으로 만든 링을 끼고 사는 독특한 소수민족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주로 북부 산악지대에 사는 민족이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은을 세공하는 마을을 방문하고 숙소로 돌아간다.

빛나는 별들, 별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보석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막이다. 사람으로 하여 상처 받고 속상해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얻게 된다. 그대가 설령 사람에게서 불편을 느낄 때가 있더라도 그를 이해하시라. 사람이 항상 평지만을 다닐 수는 없다. 평지 아닌 불평의 평지 그 비포장 길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깊어지고 확장된다. 바다를 이해하는, 바다의 가슴을 아는 소금처럼 우리는 그로 하여 할 광명의 빛이 된다.

#### 쉐다곤 파고다에서 금빛 목소리를 듣다

이른 아침 인레호수를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른다. 호텔 직원들이 나와 배웅을 한다. 옷을 단단히 입었는데도 춥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는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다. 과연 이 세계는 무엇일까? 문명에 학습되지 않고 자본에 왜곡되지 않은 최초의 인류가 보여준듯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저러한 것일까. 쉽게 잊혀지지 않을 헤어짐의 순간이다. 배는 호수의 중심을 향해 물살을 밀어내며 산을 뒤로 하고 달린다. 이곳 인타족 사람들은 모두가 외발로 서서 노를 젓는다.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부레옥잠이 호수 여기저기에 군생한다. 또한 물속에 그 밖의 수초가 많다.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야 하고, 선 채로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에 노를 끼우고 배를 모는 모습이 능숙하다. 그물을 넓게 펼치며 던지는 모습이나 수면엔 노를 치며 물고기를 모는 모습 등에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생명의 숭고함과 경건한 삶의 외경심이다.

누가 허투로 삶을 사는가. 시간을 탕진하는가.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의 호수는 우리가 한 번도 읽지 못한 경전이다. 그 어떤 사유보다도 깊고 고요한 호수의 명상은 벼락보다 크게 울리는 뇌성이요 속삭이는 신의 목소리다. 인타족은 이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부레옥잠 같은 소수민족이다. 그들의 순수와 숭고함이 문명과 자본에 오염된 우리들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피안인 듯 차안인 듯 어느 세상인가로 끝없이 달려가는 뱃전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는다. 처음으로 나는 태양의 얼굴을 본다. 팡도우사원의 얼굴을 숨긴 금빛 부처다.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잠입한 풍광과 외경의 신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거짓 없고 소박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 미얀마 상징 쉐다곤 파고다 위웅 뽀내

#### 신소부 여왕의 황금 기증 시작으로 불사

#### 중앙탑 중심으로 황금 파야 장관

도 기만이 없다. 투명하고 시리게 빛나는 이 아름다운 인레호수가 분명 내가 알지 못할 어느 신의 내면이리라.

#### 종소리 속에서 붓다와 아난의 대화를 듣다

비행기를 타고 헤호를 떠나 첫날 도착했던 양곤으로 간다. 먼저 1983년 10월 9일 랑군(양곤) 아웅산 테러사건 현장에 둘러 현화하고, 묵념 한다. 순직한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부디 거룩한 희생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로 옆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로 간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를 상징하는 황금대탑으로 그 높이가 99미터에 달하여 사원의 바깥에서 보아도 그 위용이 실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이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자연스럽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원의 내부로 들어간다. 긴 복도를 지나자 큰 보리수나무 한 그루가 일행을 맞는다. 나무 아래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정

좌하고 계시다. 두 손 모아 합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그 실체를 증험할 수 있는 분명한 불역(佛域)의 세계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둘레가 2km에 달하며 동서남북 4개의 게이트가 있고, 그 규모가 커서 헤어지면 일행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난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합장하고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온다.

아난: 중에서 납니다.

붓다: 아난아! 종을 치는 방망이가 없어도 저절로 종소리가 나겠느냐?

아난: 제가 생각해보니 종소리가 방망이에서 납니다.

붓다: 방망이에서 종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귀가 없다면 그 소리로 나겠느냐?

아난: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 종소리는 귀에서 납니다.

붓다: 귀로 종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종소리라고 분별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난: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소리는 생각에서 납니다.

붓다: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아난: 예, 마음에 있습니다.

붓다: 그러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아난이 마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마음은 실체가 없었다. 아난이 세존에게 여쭙었다.)

아난: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붓다: 아난아! 그럼 허공 가운데 종소리가 나는구나. -『능엄경』에서

그렇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온다. 모든 존재 역시 인연 속에서 난다. 내가 여기에 온 것도 인연에 의해서다. 그 무슨 진중한 인연이 있어 이 미얀마에서 저 아님답고 장엄한 쉐다곤 파고다의 금빛 시간에 머물고 있음이다. 능엄경 속 붓다와 아난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이다. 억누르기 어려운 놀라운 감동을 가만히 누르며 사원의 마당에 모셔놓은 다양한 불상

들을 본다. 모두 아름답고 미려하다. 어디를 보아도 세상 어디에도 누추함이 없다. 엄숙하고 경건하고 신비로워진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탑이 모두 원형이다. 이 사원에는 중앙탑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모신 크고 작은 황금빛 파야가 수없이 많다. 그 한가운데 하늘로 치솟은 탑의 화강장엄한 아름다움 앞에서 감동의 전율이 밀려온다. 망원경 하나가 중앙탑을 향해 있다. 렌즈 속으로 들어온 거대한 탑의 꼭대기에 우산처럼 생긴 맨 상륜부인 티(htt)를 꼼꼼히 본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찬란하다. 신성한 불심이 광휘로 번지고 있다. 저 티를 장식하는데 수천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고 모두 합치면 수백 캐럿 된 것이다. 장엄한 탑 아래 서보니 알겠다. 나는 참 극미하다. 극묘하다. 그것이 현대물리학의 나노이며, 부처님께서서 이 미 그 나노가 우주임을 수천 년 전에 밝혀셨던 것이다. 의상대사의 법설계 “진중합시량(眞中合十方), 먼지 한 점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하나는 삼라만상 온 우주에 두루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흔식을 올린 어느 불자가 사원의 마당에 세워놓은 꽃탑이 곱고 향기롭다. 많은 불상 가운데 유독 여인들만 앉아서 소원을 빌고 있는 파야가 있다. 15세기경 버고 왕조의 ‘신소부’ 여왕이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40kg의 금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왕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금을 기증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황금사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찬란히 빛나는 금은보석들 눈이 부시다. 나는 이제야 부처님의 빛이 왜 소금의 빛인지 알 것 같다. 타푸사와 발리카에게 내린 부처님 최초의 축원 “밝은 빛이 있으리라” 불발을 넣어거든 타푸사의 금발우와 발리카의 은발우가 금빛으로 빛났다고 한다. 그 빛으로 아무런 해도 없고 부자가 되고 총장이 되고 자손들이 마침내 왕위에 올라 불발탑(佛髮塔)을 세우게 된 것이다. 장엄한 탑 아래 서보니 알겠다. 나는 참 극미하다. 극묘하다. 그것이 현대물리학의 나노이며, 부처님께서서 이 미 그 나노가 우주임을 수천 년 전에 밝혀셨던 것이다. 의상대사의 법설계 “진중합시량(眞中合十方), 먼지 한 점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하나는 삼라만상 온 우주에 두루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흔식을 올린 어느 불자가 사원의 마당에 세워놓은 꽃탑이 곱고 향기롭다. 많은 불상 가운데 유독 여인들만 앉아서 소원을 빌고 있는 파야가 있다. 15세기경 버고 왕조의 ‘신소부’ 여왕이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40kg의 금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왕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금을 기증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황금사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이제 감동의 물결을 여운으로 간직한 채 떠나할 시간이다. 사원을 나오기 위해 출구의 회랑으로 향한다. 야자수나무 사이 저 너머로 황금빛 석양이 황홀한 곱속 같다. 사원을 나와 다시 한 번 돌아본다. 페인코따라(Theinkottara) 언덕 위에 금빛 찬란한 쉐다곤 대탑이 우뚝하다. 저녁노을에 물든 황금빛 사원은 장엄하고 신비롭다. 이 지상에 어둠이 올 때 대탑은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발라리라. 여명의 빛이 저 탑의 꼭대기에 있는 다이아몬드 에 제일 먼저 비추어 양곤의 아침을 열기까지 찬란하리라. 소금이 바다의 결정이듯 저비의 결정인 빛이 우리 마음의 등불에 점화될 것이다. ‘이 황금의 땅 불토에서 최초의 정토인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들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금빛 석양이 그렇게 부처님의 목소리로 축복을 해주며 우리를 배웅하고 있다. <끝>

## 자연산 구지뽕

###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으므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호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숙기, 발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mm×6,000mm×4,800mm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사개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도홍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플리프로필렌 자체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